

## 1930년대말 ~1940년대 전반기 문학에서의 민족성

김혜정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제는 <카프>를 해산할수 있었지만 조선문학의 시종일관한 저항정신과 애국애족의 터전에서 싱싱하게 싹트고 자라온 그 문학의 명맥은 도저히 끊어버릴수 없었다.》(《김일성전집》 제99권 52페이지)

우리 나라를 강점한 일제는 《카프》를 해산하고 진보적이며 애국적인 문학에 대한 전례없이 간악무도한 언론탄압을 가하였지만 조선문학의 시종일관한 강렬한 저항정신과 애국애족적인 명맥은 도저히 끊어버릴수 없었다.

특히 일제가 조선민족말살책동을 극단적으로 감행해나선 1930년대말~1940년대 전반기에 우리 작가들은 민족성을 고수하고 구현하기 위한 피타는 탐구를 하여 문학의 모든 형태들에서 민족성이 두드러지는 작품들을 창작발표하였다.

1930년대말~1940년대 전반기 우리 문학에서 두드러지는 특성의 하나는 민족성을 강하게 구현한것이다.

1930년대말~1940년대 전반기 문학에서의 민족성은 무엇보다도 민족의 유구하고 자랑찬 역사를 주제로 한 작품들을 창작한데서 찾아볼수 있다.

민족의 고유한 역사를 형상하는것은 이 시기 극도로 악랄해진 일제의 민족말살책동을 짓부시고 민족의식을 심어주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졌다.

우리 작가들은 우리 민족의 고유하고 유구한 역사를 작품화하여 인민들속에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을 높여주려고 적극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다부작장편력사소설 《림격정》(홍명희), 장편력사소설 《무영탑》(현진건), 《흑치상지》(현진건), 《봄》(리기영), 《탑》(한설야), 《태백산맥》(김사량)과 장막희곡 《락화암》(함세덕), 《락랑공주》(리동규), 《락화도》(리동규), 《방랑시인 김삿갓》(송영), 《동학당》(림설규), 전설가극 《견우직녀》(서항석) 등이 창작발표되었다.

작품들에는 우리 인민의 반침략반봉건투쟁력사가 담겨져있으며 침략자들과 억압자들을 반대하는 항거정신이 반영되어있다.

장편력사소설 《흑치상지》, 장막희곡 《락화암》 등에는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백제인민의 항전의 력사가 그려져있다.

장편력사소설 《림격정》은 16세기 봉건통치배들의 억압을 반대하는 농민들의 투쟁을 반영하고있으며 장막희곡 《동학당》, 장편력사소설 《태백산맥》과 《봄》, 《탑》 등은 봉건을 반대하고 나라를 근대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19세기말~20세기초 우리 인민의 투쟁을 형상하고있다.

전설가극 《견우직녀》는 오래전부터 우리 인민들속에 전해져내려오는 전설을 가극화하고있다.

1930년대말~1940년대 전반기 문학에서의 민족성은 다음으로 민족적성격이 짙은 인물형상을 창조한데서 찾아볼수 있다.

우리 인민의 고유한 민족적성격을 형상하고 우수한 민족적특질을 형상적으로 강조하는것은 일제의 민족말살책동을 짓부시고 민족의식을 심어주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문제이다.

이 시기 작가들은 조선민족은 슬기롭고 재능있는 민족이며 서로 돕고 화목하게 살면서 의리를 귀중히 여기는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닌 민족이라는것을 두드러지게 형상하는데 큰 힘을 넣었다.

장편력사소설 《무영탑》은 석가탑과 그림자늑에 관한 전설을 소재로 한 작품이다.

소설의 기본인물은 다보탑과 석가탑을 조각진립한 부여의 석공 아사달과 그의 안해 아사녀 그리고 아사달을 사모하는 봉건관리의 딸 구슬아기와 그에게 청혼한 경신이다. 특히 아사달부부의 성격적면모에서는 슬기롭고 재능있으며 도덕과 의리를 귀중히 여기는 우리 인민의 민족적특질이 두드러지게 강조되고있다.

주인공 아사달은 돌에 사람의 정신과 생기를 부어넣는 뛰어난 재능을 가진 조각가로, 며칠이고 탑우에서 침식을 잃고 일하는 열정의 소유자로 형상되어있다. 그는 신분적차이도 불구하고 재능과 열정에 탄복하여 자기를 사모하는 구슬아기를 대하는데서도 리기적목적을 내세우는것이 아니라 가정을 가진 남자로서 도덕적자세를 지킨다.

한편 천리길을 걸어 남편을 찾아왔으나 건설도중이라고 하여 면회도 못하고 탑이 완성되기를 기다리던 아사녀는 우연히 아사달을 놓고 즐거운 룡을 주고받는 구슬아기일행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 여기에서 아사녀는 그간 몇번 들었으나 부인하여온 소문, 남편이 권세있고 잘사는 집에 장가들었다는 이야기를 믿지 않을수 없게 된다. 아사녀는 권세있는 집의 딸과 함께 있는 남편앞에 자기가 문득 나타나면 남편의 처지가 딱해질가봐 발길을 돌려 남편에게 마음속으로 인사를 보내며 그림자늑에 몸을 던진다.

서로 아끼고 위해주며 부부간의 정을 귀중히 여기는 성격형상은 도덕의리심이 남달리 강한 우리 민족의 고상한 민족적특성을 높이 내세우고 인상깊게 강조하려는 창작적지향의 산물이다.

장편력사소설 《태백산맥》의 주인공 윤천일은 갑신정변참가자로서 정변이 실패한 다음 깊은 산속에 들어가 고요히 여생을 마치려고 한다. 그러나 산속에 들어와서도 굶주리며 쓰러져가는 사람들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분연히 일어난다.

그는 로약한 몸이었지만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찾아가 삶의 의욕과 신심을 북돋아주고 짐승을 사냥해서는 굶주린 사람들의 집에 가져다주며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세워 새 삶의 터전으로 이끌어간다.

소설에서는 윤천일을 비롯한 긍정인물들은 다 의리심이 강하고 도덕과 례의에 밝으며 지조있는 인간으로, 이웃간에 서로 돕고 위해주며 어려운 속에서도 락천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그려져있다.

장편력사소설 《림격정》에서도 농민무장대 두령인 주인공 림격정이 늙은 아버지를 정성다해 봉양하며 아들의 도리를 지켜가는 장면들을 강조하여 묘사함으로써 례의도덕이 밝고 의리심이 강한 조선민족의 특성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1930년대말~1940년대 전반기 문학에서의 민족성은 다음으로 민족의 고유한 세태풍속과 민족적정서가 넘치는 생활장면들을 두드러지게 형상하고 전개하여 묘사한데서도 나타나고있다.

고유한 민속과 우수한 민족문화유산은 민족성을 살려나가며 민족적자부심을 안겨주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 시기 일제는 조선민족말살정책의 한 고리로 우리 민족의 고유한 생활풍습과 우수한 민족문화유산을 없애버리려고 발악적으로 날뛰었다.

이런 조건에서 민족의 고유한 생활세태를 생동하고 감명깊게 그려내고 민족문화유산을 형상적으로 높이 내세우는것은 일제의 민족말살책동을 반대하며 우리 인민들에게 민족적자각을 복돋아주고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을 안겨주는 애국애족적인 투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 진보적이며 애국적인 작가들은 민족생활세태와 우수한 민족생활, 민족문화유산을 형상적으로 돋구어주고 전개하여 묘사하였다.

장편력사소설 《태백산맥》에는 깊은 산중에서 사는 처녀들이 해빛따사로운 봄날 산골 개울가에서 나물을 다듬으며 《아리랑》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전개하여 묘사하고있다.

몸에는 비록 토스레옷을 걸치고 굶주림에 얼굴이 여위였지만 젊음이 넘치는 맑은 눈동자에 고향에 대한 그리운 마음을 가득 담아 부르는 《아리랑》노래, 민족성과 향토색이 짙은 각 지방의 특색있는 《아리랑》이 산천의 유정한 물소리와 어울려 청아하게 울려퍼지는 장면은 그대로 일제의 악랄한 탄압속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억세게 살아가는 우리 민족, 집요하고 잔인한 민족말살책동속에도 쓰러지지 않고 굳건히 살아있는 민족의 넋으로 뜨겁게 안겨온다.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세태생활과 민족의 슬기와 재능이 깃들어있는 유산들을 주제로, 기본내용으로 하는 작품들도 창작되었다.

그것은 특히 시문학에서 찾아볼수 있다.

시 《메주》, 《콩살곰》, 《국수》 등은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조선인민의 생활민속을 노래한 작품들이다.

시 《메주》는 메주를 담그는 조선민족의 전통적인 세태생활을 생동하게 펼쳐보이고 있다.

메주콩 구수하다 집어먹는 아이들  
설사하리라고 꾸짖으며 빗으시노라  
빗으신 메주덩이를 가끔 세여보시노라  
큰딸네 스무덩이 작은딸네 열두덩이  
남는것 집에 쓰고 이만하면 넉근하고  
할머님 허리짚고서 턱짓으로 하시니라  
참외보다 훨씬 크고 수박보다 적게 빗어  
짚으로 두번 엮어 대들보에 매여달고  
자다가 안떨어질가 걱정하며 자노라

시를 읽으면 메주를 담그는 할머니의 모습이 생동하게 안겨오고 구수한 메주냄새가 금시 풍겨오는것만 같으며 우리 민족의 고유한 생활풍습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뭉클 안겨온다.

시 《콩살굼》에서는 우리 나라 농촌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생활의 한토막을 생동하게 노래하고있다. 시에서는 맑고 푸른 가을날 서로서로 모여앉아 콩살굼을 해먹으면서 화목하고 즐겁게 지내던 어린시절의 정다운 동무들과 그리운 고향을 추억하는 서정적주인공의 감정을 펼치면서 민족적인 생활풍습을 정서깊게 보여주고있다.

시 《국수》는 조선민족의 전통적인 음식문화의 하나인 국수를 눌러 먹는 생활을 펼치면서 《겨울밤 찜하니 익은 동치미국》, 《절절 끓는 아래목》을 좋아하는 조선민족의 생활정서를 흥취있게 엮으면서 민족적감정을 한껏 북돋아주고있다.

시 《검무랑》과 《고려자기부》는 전통적인 우수한 민족문화를 긍지높이 노래하고있다.

시 《검무랑》에서는 은장도를 갈라쥐고 건드러지게 돌아가는 우리 나라의 칼춤과 춤추는 녀인의 모습을 긍지높이 노래하고있다.

칼춤을 추는 녀인의 도고한 모습에는 일제폭압에 맞서 죽음을 각오하고 민족의 넋을 지켜나가려는 조선인민의 기상이 구현되어있다.

시 《고려자기부》는 세계에 자랑높은 고려자기에 대한 긍지와 애착의 감정을 노래하면서 민족의 슬기로운 전통을 이어갈 지향과 의지로 사상감정을 승화시키고있다.

1930년대말~1940년대 전반기 문학에서의 민족성은 우리 글을 적극 살려 쓰며 민족의 전통적인 문학형식을 적극 살려쓰고있는데서도 찾아볼수 있다.

이 시기 문학작품들은 고유한 우리 글로 되어있으며 시형식에서도 시조형식의 단시들이 많이 창작되었다.

1930년대말~1940년대 전반기 민족성이 두드러지게 구현된 문학작품들의 창작은 일제의 민족말살책동에 항거하던 우리 인민들에게 민족의식을 북돋아주고 민족성을 견결히 고수해나가도록 고무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졌으며 우리 문학의 진보적이며 애국적인 성격을 고수하고 민족수난기 우리 문학유산을 풍부히 하는데서 의의를 가졌다.